

부평문화원 샘길해설사 선생님이 들려주는

부평과 “굴포천, 이야기

우리 고장 부평을 상징하는 동물은 **백마**, 새는 **비둘기**입니다.
나무는 **은행나무**, 꽃은 **국화**로 지정되었습니다.



부평문화원 샘길해설사 선생님이 들려주는

부평과 “굴포천, 이야기

부평문화원의
샘길따라
 탐방코스안내



칠성약수터



고래우물



용포약수터



선포약수터



나비공원 / 양묘약수터



청천약수터



부평역사박물관

“ 부평문화원
 해설사 선생님과
 굴포천 물줄기를 따라
 함께 여행을 떠나요!
 ”

내 고장 바로알기 가이드북

목 차

* 부평애 샘길따라 지도

* 굴포천 이야기

- 06 부평의 대표하천 굴포천
- 10 굴포천의 역사
- 12 굴포천과 원통이 고개이야기
- 14 굴포천의 발원지 칠성약수터
- 16 인천가족공원의 부령약수터
- 17 함봉산과 용포 · 선포약수터
- 18 인천나비공원의 양묘약수터
- 20 인천나비공원
- 22 장수산의 청천약수터
- 24 사연많은 안하지고개
- 26 생태하천인 맹꽁이습지
- 28 심정동의 이름은 열우물마을
- 29 열우물 마을의 고래우물
- 30 옛날옛적에(출처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 천마와 아기장수
 - 굴포천과 원통이 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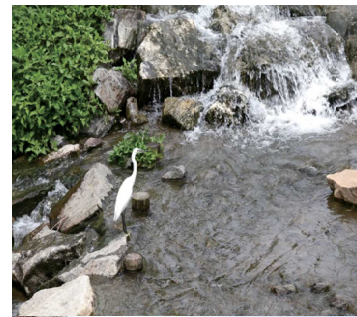
* 부평 이야기

- 38 넓고 풍요로운 땅 부평(富平)
- 40 부평이름의 변화과정
- 44 과거 부평의 지형
- 45 현재 부평의 행정구역
- 46 일제강점기 무기공장 인천육군조병창
- 48 산곡동의 영단주택
- 49 미군 24군수지원사령부 애스컴시티
- 50 무기공장인 미쓰비시제강과 사택
- 51 인천육군 조병창의 지하시설 부평지하호
- 52 도심속 광산 부평은광

* 환경 이야기

- 56 어류와 수서곤충
- 58 곤충
- 60 파충류와 양서류
- 62 조류
- 64 식물

* 가로세로 낱말맞추기





부평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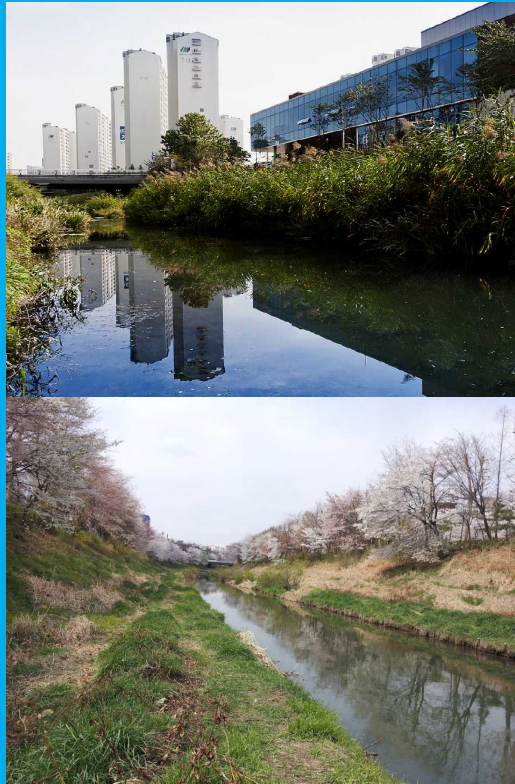
새길따라

(굴포천 발원지 즐기기)



부평문화원 샘길해설사 선생님이 들려주는

굴포천* 이야기



부평문화원에서는 오랜 시간 지역 향토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부평구 도심 속 곳곳에 흐르고 있는 굴포천의 원천 물길(샘길)에 대한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을 통해 꾸준히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 고장 바로 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평팸 샘길따라' 탐방은 지역의 지명과 유래, 숨은이야기 등을 중심으로 샘길따라해설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굴포천의 원천 물줄기를 따라 걷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고장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부평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부평의 대표하천 굴포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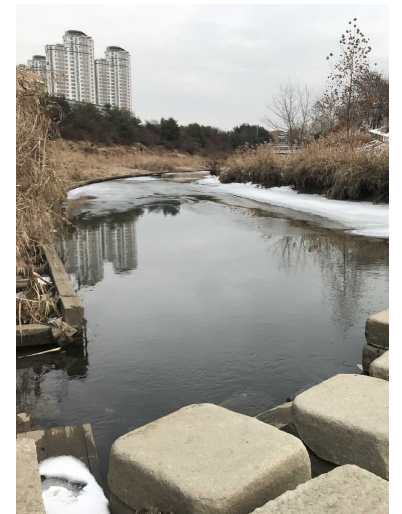
2016년 12월 27일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굴포천은 **부평의 대표 하천**입니다. 굴포천은 원래 있던 물줄기를 인공으로 파서 만든 한강 하류부의 물줄기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인천가족공원내의 칠성약수터가 발원지입니다. 그곳을 시작점으로 하여 인천 부평구의 도심지 (칠성약수터 → 부평공원 → 미군부대 옆 → 구 롯데백화점 → 부평구청 → 삼산동)를 지나 부천시를 통과한 후 경기도 김포에 이르러 한강까지 연결되는 국가 하천입니다. 총길이는 칠성약수터를 기점으로 한강 입구까지 약 27km입니다.

※굴포(堀浦)는 '관 개울'을 한문으로 표현한 말로 강을 인공으로 뚫었다는 의미이며 강을 인공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강에 사람들이 손을 댔다는 뜻입니다.



굴포천의 물줄기는 여러 개의 원류와 지류가 만나 물줄기를 이룹니다. 시작점인 원동천을 비롯 하여 산곡천, 세월천, 청천천, 목수천, 향동천 등 과 합류하여 한강으로 흘러들게 됩니다. 인천에는 국가 하천 2개와 30개의 지방 하천이 있습니다.

2개의 국가 하천은 바로 아래천과 굴포천입니다. 굴포천은 고려, 조선을 거쳐 본래의 목적인 운송 수단에서 농경수단인 농수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자연형 도심 생태하천으로 바뀌어서 다양한 동·식물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친숙한 공간으로 바뀌어 산책로와 주민 운동 공간 등으로 이용 되고 있습니다.



골포천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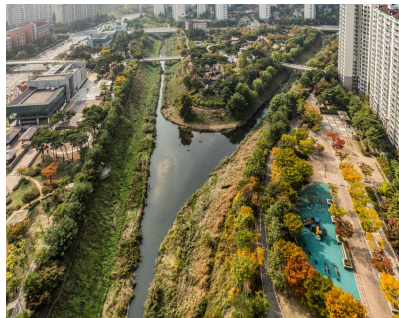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전 고려 왕조에서 가장 강력한 개혁 정책을 펼쳤다는 충선왕은 한강 남쪽 어귀의 가장 높은 산 주변의 길주목을 부평부라고 개칭을 하였는데 그때가 1310년 이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하천주변에 모여 부락을 형성하였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평벌에는 비옥한 농토와 하천이 있어서 다수의 부락이 생겨나고 그렇게 부평의 2,000년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골포천(堀浦川) 유래인 골포는 판개란 뜻으로 지금도 김포시 김포 국도에 팽개 다리가 있는데 이는 판개의 변음입니다.

고려 고종 때 무신 '최이'가 몽고 항쟁을 위해 삼남지방의 쌀을 비롯한 물자 운반을 위해 도랑을 파서 서해로 통하려고 사람을 보내 안남(부평)의 지형을 살펴보라고 하였는데, 지세가 험하여 될 수 없다 하니 취소하였습니다.



1698년 부평부읍지



삼산동 부평역사박물관 뒤 고포천



그 후 조선 중종 때(1534) 김안로가 실제 공사를 추진하였다는데 그래서 판개울이라는 하천이름이 붙여지고 이를 한문으로 풀어서 고포(掘浦)라고 한 것이 지금의 고포천이라는 것입니다.

한강 범나루에서 김포 팽개다리까지가 고포천이고 거기서 목숙교까지는 직포, 그상류에서 칠성약수터까지는 원통천이었다고 부평향토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두를 고포천 이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고포천은 부평, 계양, 부천 등 부평평야의 중심부에 흐르면서 전설 같은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굴포천과 원통이 고개이야기

옛날에는 남부지방에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서울로 운반하는 것이 나라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배에 싣고 인천 앞바다에서 한강을 거슬러 서울까지 운반해야 했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길은 강화도와 김포 사이에 소용돌이가 심한 '손돌목'이라는 바닷길을 반드시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물길에 험하다 보니 *세곡선은 그곳에서 자주 침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남지방에서 거두어들인 곡식을 바닷물에 빼앗기는 일이 생기니 국가적으로 손실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물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기요람(1808년)이라는 책자에 의하면 고려 고종 때 무신 정권으로 유명한 최충헌의 아들 '최이'는 몽고 항쟁을 위해 삼남지방(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서 쌀을 비롯한 각종 물자를 위해 물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평 벌을 가로 질러 한강으로 흐르던 천을 개조하고 인천 제물포 쪽과 연결하여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굴포(운하) 건설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땅의 모양이 너무 험하여 팔 수 없다는 판정이 나오자 시도도 못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 약 3백여 년이 지난 1540년 조선 중종 때 권신 '김안로'가 다시 원통천 방향으로 굴포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통이 고개 (간석5거리↔부평방향)에서 암석이 많이 나오다보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원통하다' 라는 뜻으로 현재까지 원통이 고개로 불리어 지고 있습니다.

※ 세곡선-예전에 나라에 바치는 곡식을 실어 나르던 배



원통이 고개



강화 손돌목

굴포천의 발원지 칠성약수터



굴포천의 시작점은 '칠성약수터'입니다. 이 약수터는 인천가족공원 내 '금마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굴포천은 여러 개의 원류와 지류가 합해져서 하나의 물줄기를 이룬다고 했지요? 여기서 원류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되시지요? 예를 들어 나무에 빗대어 설명하면 '원류'는 기둥이 되는 줄기를 말하고 '지류'는 뺨어나간 잔가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원통천 물줄기의 시작점이 바로 칠성 약수터입니다. 부평역사박물관 뒤쪽의 물길을 원통천의 끝 지점으로 보고 여기까지 길이는 약 15.2km입니다. 현재 이곳은 거의 방치된 상태로 초라하고 물줄기도 약하지만 역사책 (부평사, 계양사, 부천시사 등)에서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굴포천의 원천 물줄기인 원통천이 발원하는 곳입니다.

칠성약수터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작은 도랑을 타고 600m정도 내려와서 부령약수터 주변 으로부터 흘러온 물줄기와 합수하여 인천가족공원 입구 도로 밑을 지나 자연하천으로 흐릅니다.

그럼 칠성약수터는 금마산의 인천가족공원 안에 있는데 이름이 왜 '칠성'일까요? 전해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칠성판'이라는 7개의 구멍이 있는 나무판으로 시신을 담은 관 밑에 깔았던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이 지어졌고, 또 다른 하나는 여기 약수터가 있는 장소가 북두칠성이 가장 잘 보이는 장소라서 그렇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명당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칠성약수터

인천가족공원의 부령약수터



부령약수터

금마산 인천가족공원 내에는 또 다른 약수터가 있는데 바로 부령 약수터입니다. 1980년대 중반에 개발된 약수터입니다. 칠성약수터의 물줄기와 합해져서 가족공원 묘지를 관통합니다. 가족공원 입구에서 1차 합수된 물줄기는 다시 부평도서관 뒤쪽의 용포약수와 선포약수가 합수되어 미군부대 앞 부평공원 부근에서 합수되어 굴포천으로 흐릅니다. 모다아울렛 (구. 롯데백화점)과 동아아파트를 지나 부평구청 뒷편 맹꽁이습지까지 이어 집니다.

함봉산이 품고있는 용포 · 선포약수터



용포약수터



선포약수터

함봉산은 호봉산, 선포산 등 여러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함봉산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은 호봉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산에는 굴포천으로 흐르는 2개의 지류가 있습니다. 바로 용포약수터와 선포약수터입니다. 용포약수터는 부평도서관 옆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면 만나 볼 수 있으며 선포약수터는 부광고등학교 맞은편 등산로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함봉산 줄기는 지금의 신촌사거리까지 내려와 큰 돌산을 이루었고 부평도서관 인근에서 경원대로를 넘어 백운공원까지 이어집니다. 신촌 사람들은 이곳을 흔히 '빡빡산'이라고 불렀는데 말 그대로 돌만 무성한 지형이었습니다. 함봉산에는 심정동과 가좌동을 연결하는 구르지 고개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이 고개를 통해 생선장수, 소금장수들이 많이 넘어 다녔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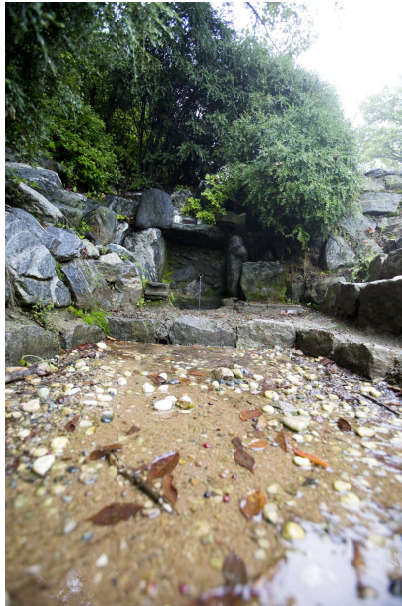


인천나비공원의 양묘약수터



인천 나비공원은 어린 묘목을 키워내는 부평 양묘장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양묘 약수터란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흘러나오는 물의 양이 적어 약수터의 기능은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천 약수터와 함께 청천천을 이루는 물줄기입니다. 이 물줄기는 한국지엠을 지나 굴포천으로 흐릅니다.

장수산은 청천초등학교 뒷산으로 한때는 깎은산, 깎까산 또는 헬기장으로 불려 졌었습니다. '깎은산'이나 '깎까산'은 일제강점기 때 군인들의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산 봉우리를 평평하게 깎아 놓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입니다. 또한 한국 전쟁 후 미군들이 이곳을 헬기장으로 사용하면서 헬기장으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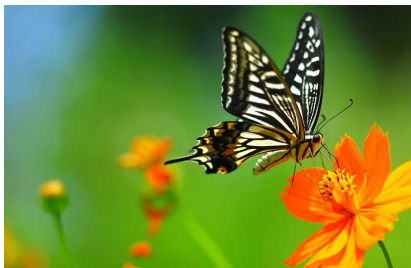
양묘약수터



인천나비공원

청천동 장수산 자락에 위치한 부평숲 인천 나비공원은 살아있는 나비를 보고 싶을 때 찾아갈 수 있는 도심에 위치한 생태공원으로 2009년 문을 연 이후 지역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고 있으며, 아이들에게는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해 주는 체험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연 교육센터가 있어 숲을 배우고 살아있는 곤충을 관찰하며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비 생태관에서는 5월에서 10월까지 나폴 나폴 살아 있는 나비의 생활환경과 성장 과정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나비 생태관을 거쳐 재활용 자재들로 여러 가지 타악기를 만들어 연주하고 놀 수 있는 소리 동산을 지나 여러 가지 수생식물들이 있는 습지원을 지나면 양묘물 웅덩이가 나타납니다. 양묘물 웅덩이 습지는 양묘약수터 바로 아래 조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장수산의 청천약수터



장수산 둘레길을 걸어 동쪽으로 걷다 보면 작은 골짜기 사이 청천약수터가 나타납니다. 이곳은 여름이면 산골짜기 계곡을 막아 청천 물놀이장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여름철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숲이 우거진 계곡에 만들어진 물놀이장은 시원한 그늘 속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역주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청천천은 현재 장수산의 양묘약수터와 청천약수터에서 흐르는 물이 만나 북개구간 지하로 흐르고 있습니다. 물줄기는 다시 갈산동 부평관광호텔 부근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한국지엠을 통과한 세월천 (원적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과 1차로 합해져 맹꽁이습지에서 골포천에 합류하고 일부는 삼산동 부평역사박물관 뒤쪽으로 흐르는 골포천과 2차로 만나게 됩니다.



사연 많은 안하지고개

굴포천을 이야기 할 때 우리는 원통이고개, 무네미고개 그리고 안하지고개를 떠올리게 됩니다.

안하지고개는 청천동과 효성동의 경계 부근에서 서구 가정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며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수로를 인공으로 판 흔적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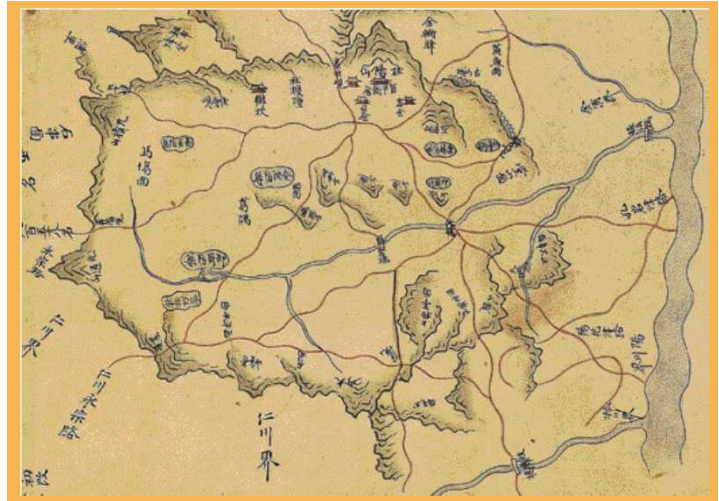
이 곳은 물길이 험한 강화 손돌목을 피하고 안전한 뱃길을 얻기 위해 시도했던 곳 중의 하나입니다.

안하지로 불리게 된 사연은 몇 가지가 있는데 조선시대 김안로에 의해 물길을 만들던 중 생겨난 웅덩이에 천마산과 원적산에서 흘러 온 물이 연못을 이루었고 이곳에 기러기 때가 많이 날아와 앉아 기러기가 많이 내려온 못이라 하여 안하지(雁下地)라 불렀다고 합니다. 한편 규장각에 보존된 부평부 지도에는 이곳이 구십현(九十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새 도읍지를 모색할 때 골짜기가 백개인 곳을 살피던 중 아흔 번째였던 이곳 고개를 '구십현'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세금으로 걷은 곡식을 서울로 운반할 때 이 안하지고개를 통과 했었습니다. 당시 서쪽의 해안가 세곡창고에 저장된 곡식을 수레에 실어 이 고개를 통과할 즈음 고개에 주막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주막집 주모 이름이 안아지라는 여자여서 '안아지'라 불렀다고도 합니다.



태조 이성계



해동지도 (1760년) 중 부평부

생태하천인 맹꽁이습지

생태하천으로 거듭난 넓은 공간으로 이곳에서 멸종 위기 동물 2급인 맹꽁이를 관찰할 수 있으며 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등 도심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새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맹꽁이는 평소에는 땅속에서 숨어 지내며 장마철 물이 많아질 때 번식하는 희귀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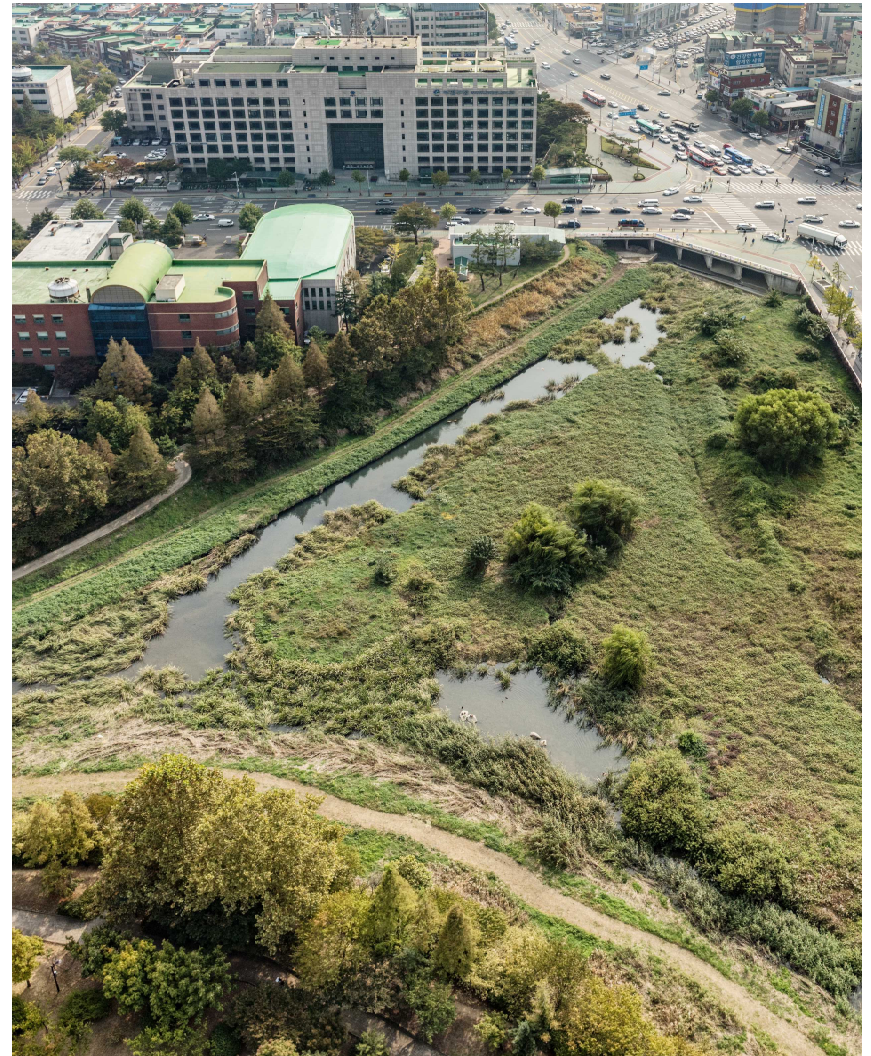


그림 : 삼산중학교 1학년 김도연

산란기 외에는 울음소리도 들을 수 없고 눈에 띄지 않는 습성을 가진 맹꽁이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알을 잘 낳아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고 서식지를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수생식물과 함께 자라나는 야생화 등 식물들이 어우러져 살아갈 때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어 줄 것입니다.

굴포천 맹꽁이 습지는 맹꽁이 뿐만 아니라 철 따라 날아오는 철새들의 쉼터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자연과 공존하며 지켜야 할 굴포천의 맹꽁이 습지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보물이기도 합니다.



맹꽁이 습지

십정동 열우물마을



열우물마을 (십정동)
(사진출처 : 부평구청 홍보담당관)

아주 오랜 시절, 마을에 열 개의 우물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 마을을 열우물 (십정1동) 이라고 불렀습니다. 열우물은 약 200 ~ 300년 전 4개 (성, 구, 박, 신)성씨들이 주로 모여 살며 마을을 이루었고, 해가 잘 드는 양지 편, 함봉산 서쪽 산 밑인 음지편과 구석마을 등 세 개 마을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이름이 희미해졌습니다. 흔적조차 사라졌지만 한때 전국 최고의 소금을 생산했던 주안염전을 곁에 둔 곳이기도 합니다.

열우물 마을의 고래우물



고래우물

고래우물은 약 300~400년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3~4m 깊이에 바닥이 흰히 보일 정도로 맑은 물을 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매우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하여 우물에 낀 물안개를 볼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9년에 걸쳐서 가뭄이 극심하여 대부분의 지역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고래우물은 항상 물이 넘쳐나서 주변의 논과 밭에 물을 충분히 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천마와 아기 장수

철마산의 원래 이름은 천마산이었다.
옛날 이 산 속에는 양 어깨에 날개가 달린 천마가 살았다.
그러나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가깝게 보인 적은 없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산 아래 마을에는 전설이 생겨났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근처에 영웅이 태어나고, 그 말을 타고 출정할
것이라는 신령스러운 전설이었다.
조선 중기, 산 아랫마을에 선량한 부부가 살았다.
남편은 건강하고 착했으며 아내도 부지런하고 얌전하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부부였으나 결혼 십 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없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말이 힘차게 달려오는 꿈을 꾸고 아기를 갖
게 되었다.
“여보, 새벽에 길몽을 꿴어요. 아기를 가지려나 봐요.”
꿈 내용을 들은 남편은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다.
“태몽이면 얼마나 좋겠소?”
열 달이 지난 뒤 남자 아기를 낳았다.
아기는 눈이 부리부리하고 총명해 보였으며 어깨도 넓었다.
그리고 열흘 만에 걸었으며 한 달 만에 뛰어다녔다.
백일이 되자 땃돌을 번쩍번쩍 들어올렸다. 몸도 민첩해서 방바닥에서
벽을 타고달려 올라가 천장을 타고 뛰다가 반대편 벽을 타고 뛰어 내려
왔다.

내려왔다. 초가지붕 위로 휘휘 날아올랐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천마
산 꼭대기로 달려 올라가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경탄하여 말했다.
“아, 우리 마을에서 전설처럼 정말 아기 장수가 태어났구나.”
아기 장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관아에까지 전해졌다.
고을 사또는 몸소 마을로 와서 아기를 보고 얼굴이 험하게 일그러졌
다.
아기 장수가 나오면 역적이 되어 나라를 해친다는 속설 때문이었다.
그는 아기의 친척 중 가장 나이가 든 어른에게 말하였다.
“아기를 광에 가두어라. 내가 조정에 보고를 하면 명령이 내려올
것이다.”
사또가 돌아간 뒤 아기 장수의 부모는 아기를 광에 가두고 눈물로
시간을 보냈다.
며칠 뒤 아기 장수를 죽이기 위해 서울에서 관군이 달려온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아기의 부모와 일가 친척까지 모두 죽일 것이라는 소문도
들려왔다.
아기 장수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기야, 나를 용서해라. 네가 관군에게 잡혀 죽고 일가가 몰살 당하
느니 너의 목숨을 내가 끊는 게 낫다.”
아기 장수는 눈물로 애원했다.
“저를 묻을 때 콩 다섯 섬과 팥 다섯 섬을 같이 묻어 주세요.”
아버지는 아기 장수를 다듬잇돌로 눌러 죽이고 땅에 묻으며 콩과 팥을
함께 묻었다.
이튿날 관군이 도착했다. 관군 장수는 사정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라의 후환을 없애고 우리 관군의 수고를 덜어 주었으니 잘한 일이다. 무덤으로 나를 안내하라.”

관군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기 장수가 살아 있고, 아기와 함께 묻은 콩은 군사가 되고 팥은 군마가 되어막 아기 장수를 호위하여 일어나려는 것이었다.

관군 장수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어서 진압하라. 어서 저 역적들을 죽여라!”

아기 장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왜 나를 역적이라 하십니까. 머지않아 조국에 쳐들어올 적군을 맞아 싸우다 죽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관군은 칼을 내리쳐 아기 장수를 죽였다.

마을 사람들은 아기 장수 부모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아기 장수를 죽이다니, 나라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요. 하늘이 별을 내릴 거예요.”

그때 천마산 골짜기에서 천마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흔들며 들려왔다. 관군과 마을 사람들은 보았다. 천마가 힘차게 날개를 휘저으며 날아와 아기 장수의 무덤 위를 선회하는 것을. 천마는 한나절 동안 그렇게 하늘을 날며 슬피 울다가 땅으로 떨어져 죽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기 장수의 무덤 옆에 천마를 묻어 주었다.

몇 해 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왜군이 쳐들어왔다.

조선의 군대는 왜군을 당하지 못해 수많은 목숨과 조선의 강토가 그들의 발굽에 짓밟혔다.

사람들은 탄식했다. 아기 장수가 살아 있었으면 천마를 타고 날아다니며 왜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켰을 것이라고.

굴포천과 원통이 고개

부평 지역의 중요한 지명으로 남아 있는 굴포천과 원통현은 옛날부터 여러 차례 시도했던 경인 운하 사업과 관련된 이름이다.

굴포천은 좁은 의미로는 옛 부평의 별말에서부터 한강까지 물이 통하도록 사람의 힘으로 뚫은 하천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이것과 연결된 대교천, 북포, 직포까지 포함하여 옛 운하 사업을 할 때 연결되었던 부평 지역의 하천을 통틀어 말한다.

옛날에는 남부 지방에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서울로 운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의 사업이었다.

인천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거슬러 서울까지 가면 매우 편리하지만 강화도와 김포 반도 사이에 흐르는 해협에 있는 손돌목이라는 곳에 소용돌이 급류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조선 중종대왕은 낙심하여 크게 탄식했다.

“또 거기서 세곡선이 침몰했다는 말이오? 버린 곡식이 삼천 석 이라니 이를 어쩐단 말이오?”

중신들이 고개를 숙였다.

“송구하옵니다. 국가 재정이 거의 그 세곡에 달렸는데 나라 살림에 큰 주름이 잡히게 되었사옵니다.”

중종대왕은 한숨을 쉬었다.

“나라 살림도 살림이지만 가난한 백성들이 배를 주리며 납부한 세곡을 그렇게 버리니 면목이 없는 일이오. 경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시오.”

그때 권신 김안로가 아뢰었다.
 “전하, 한 가지 방법밖에 없사옵습니다.”
 “그게 무엇이오?”
 “그 손돌목을 피해 운하를 파는 것이옵니다. 그러나 고려 때 실패한 것이옵니다.”
 “자세히 말해 보오.”
 대왕이 말했다.
 “고려 시대 최충현의 아들 최이는 김포 굴포천을 한강과 연락하는 수로를 개척하여 한강물을 서해로 돌리려다가 계양 산맥의 큰 고개 암벽을 뚫지 못하여 실패하고 말았사옵니다.”
 신하들은 며칠 동안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종종 대왕은 깊이 생각한 끝에 김안로에게 운하를 파라는 왕명을 내렸다.
 김안로는 고려 시대에 실패한 곳을 그대로 뚫고 나가려 했다.
 그는 한강 입구인 연사정에서부터 출발하여 부평의 굴포천을 깊이 파서 부평 평야를 횡단하여 계양 산맥의 원통현까지 나아가고, 또 한편 번지기 마을(현재의 가좌동)의 갯골 포구에서 시작하여 동암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사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김안로는 감독관에게 호통을 쳤다.
 “나라의 경제가 여기 달렸는데 왜 못 판단 말이냐!”
 감독관은 무릎을 꿇었다.
 “산 전체가 단단한 돌이옵니다.”
 김안로는 다시 호통을 쳤다.
 “그래도 파라. 돌산을 부수란 말이다.”
 그러나 워낙 단단한 돌이라 곡괭이 끝이 번쩍번쩍 불꽃을 내며 튀었다. 횃불을 켜고 수백 명이 한 달이 넘도록 돌산에 달라붙었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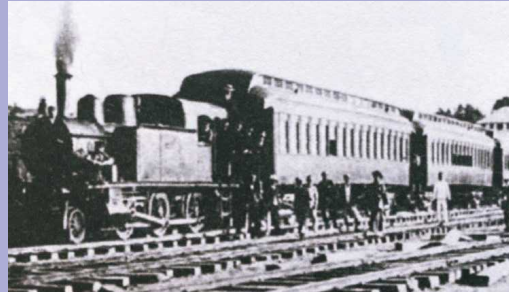
결국 암벽을 관통하지 못하여 실패로 돌아갔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김안로는 다른 방향을 찾으려 했다.
 현재의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소래산 맥옆 수월현으로 방향을 돌려 인천장수천을 깊이 파고자 했으나 이번에는 수월현의 암벽을 뚫지 못하여 실패했다.
 “그래도 어딘가 길이 있을거야.”
 그는 세번째 시도에 나섰다.
 이번에는 굴포천에서 현재의 청천동 청천천과 연결시켜 수로를 깊이 파고 안하지고개를 우회하면서 가정천으로부터 서해로 운하를 뚫으려 했으나 철마산 맥의암벽을 뚫지 못하여 실패했다.
 김안로는 암벽앞에 털썩 주저 앉았다.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왜 저희의 정성을 외면 하십니까.”
 세번의 노력이 실패하자 종종임금은 단념한 듯 고개를 저었다
 “참으로 원통한 일이오. 이제는 다른 수송의 방법을 발전시킬 수 밖에 없는 일이오.” 그래서 경인 운하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런 과정에서 인천에는 몇개 지명이 생겼다.
 결국 운하를 파지 못하여 원통하다고 하여 원통이고개라 한 것이 원통현(圓通峴)으로 변했고, 물을 넘기려 했다고 해서 무넘이고개라 했는데 그것이 한자 뜻 그대로 수월현(水越峴)이란 지명이 되었다.

출처 : 인천역사자료관
 ‘옛날옛적에 인천’은 중에서



부평문화원 샘길해설사 선생님이 들려주는

부평* 이야기



역사 속 부평

현재 우리 고장 부평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해당하는 하나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부평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600여 년 간 인천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읍격이 높았던 적도 있었던 독립된 고을이었습니다. 당시에 부평도호부 관할의 땅은 15개의 면을 가진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역사를 지닌 부평은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함께 품은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부평은 넓은 평야를 지닌 지역이다 보니 농경문화가 존재 했습니다.

부평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생긴 지역입니다.

1899년 한양의 노량진과 제물포 사이에 경인선 철도가 놓이고 기차가 다니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차는 '화륜거'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불을 내뿜는 수레'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 역시 1968년 부평지역을 지나는 경인 고속도로입니다. 이렇게 우리 고장 부평은 자랑스러운 점도 있지만 역사 속에서 아픈 이야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의 *조병창, 에스컴 시티(미군 군수 지원부대), 미쓰비시 줄사택, 지하호 등 어두운 역사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경제 발전을 이끈 수출 산업 공단으로서의 부평, 자동차 산업의 출발지 부평 등은 부평의 빛과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부평에 대해 알아볼까요?

넓고 풍요로운 땅 부평 (富平)

부평은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부평은 한자로 풍성할 부(富)자와, 평평할 평(平)자를 씁니다. 글자가 갖고 있는 뜻은 '부(富)'는 '넓다, 넉넉하다, 부유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평(平)'은 '평평하다, 풍요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의 뜻대로 해석한다면 '부평'은 '넓고 풍요로운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넓은 땅은 맞지만 농사를 짓기에는 거칠고 습하고 척박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의 사람들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 척박한 땅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 ◆ 475년 [고구려 장수왕 63년] “주부토군”
- ◆ 757년 [통일신라 경덕왕 16년] “장제군”
- ◆ 940년 [고려 태조 23년] “수주”
- ◆ 1150년 [고려 의종 4년] “안남도호부”
- ◆ 1215년 [고려 고종 2년] “계양도호부”
- ◆ 1308년 [고려 충렬왕 34년] “길주목”
- ◆ 1310년 [고려 충선왕 2년] “부평부”
- ◆ 1413년 [조선 태종 13년] 부평도호부로 환원
- ◆ 1895년 [조선 고종 32년] 경기도 부평군
- ◆ 1914년 [1914년3월1일] 부천군 부내면으로 편입
- ◆ 1940년 [1940년4월1일] 인천부에 편입
- ◆ 1945년 [1945년8월15일] 인천부가 인천시로 승격



대동여지도(1861)에 나타난 부평



그림 한윤기



부평 이름의 변화과정

주부토군

역사 속의 부평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부평이라는 고장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부평은 삼국시대부터 존재했습니다. 물론 그때 사용한 이름이 부평은 아니었습니다. 부평의 최초 이름은 고구려 장수왕(475년)때 '주부토군'입니다. 이름이 왜 '주부토군'이었을까요? 부평은 한강과 가까워서 그 당시 강물이 자주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에 독을 쌓았는데 강물을 막기 위해 독을 많이 쌓다보니 독이 줄지어 있었겠지요? 그래서 '줄보독 → 줄보독 → 주부토' 이렇게 음이 변하여 '주부토'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 제

그 다음 부평의 이름은 '장제군'입니다. 왜 '장제군'인지 눈치 채셨나요?

맞습니다. '장제'라는 말은 '긴 독'이라는 한자어입니다.

부평은 통일신라로 시대가 넘어오면서 경덕왕(757년) 때 한화정책, 즉 중국의 제도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에 의해 세 글자, 네 글자로 된 우리 고유의 지명을 모두 두 글자인 중국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부토군'이 '장제군'이 된 것입니다.

※ 개국공신 - 나라를 세우는 데 왕을 도와 공이 많았던 사람에게 내린 칭호

※ 수주읍 - 행정구역의 '읍'을 두었다는 것이 아니라 '읍치(邑治)', 즉 요즘 말로 하면 시·군청을 두었다는 말

수 주

고려 태조 23년(940년)에는 지방제도를 고쳤는데 전국의 지명을 주, 부, 군, 현으로 변경하면서 '장제군'을 '수주'로 승격시켰어요. 현재 '수주'에 해당되는 지역은 지금의 인천 계양구, 부평구,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일대를 말합니다. '수주'라는 이름은 *개국공신 이희목이라는 분이 수소나무 우거진 수소마을(목상동)의 호족이었어요. 그래서 수주라고 했고 이곳에 * 수주읍을 두었다가 후에 교통이 편리한 배곶이(현재 계양구 오류동)로 이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 태조의 후삼국 통일 과정에 공을 세워 호족 이희목에게 부평이씨 성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평 이씨의 시조가 이희목이라고 합니다.

안남도호부

고려 의종 때(1150년)에는 안남도호부로 변경이 됩니다. 이때 온수골(지금의 계양구 계산동)로 청사를 이전합니다. 여기서 '안남'이란 개경 이남의 편안한 땅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안남도호부는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일종의 지방 행정기구로서 936년(태조19년)에 전주에 설치했던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안남도호부는 고부와 영암으로 이전하였다가 1150년에 수주, 즉 부평 일대로 옮겨 왔습니다.

계양도호부

지금으로부터 약 800여 년 전에 계양도호부 (1215년 고종2년)는 계양산 아래 고을에 계양도호부 관아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고려 때 대표적 문인 이규보가 계양도호부사로 부임하면서 이 고을을 다스렸습니다. 이규보는 1219년(고종6)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약 1년여 동안 계양도호부 수령으로 재임을 하셨습니다. 그 분이 남기신 「동국이상국집」에 고려시대 부평의 모습을 다소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분은 부평에 대하여 "사람 순박하고 일 적어 기쁘기는 하나 땅 박하고 백성 쇠잔하여 차마 볼 수 없네." 라는 글을 남겨 당시 부평의 농경 환경이 그리 좋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규보의 「계양망해지」에서는 "길이 계양의 변두리에 사방으로 나 있으나 한 면만 육지를 향하고 삼면은 모두 물이다"라는 것을 보아도 이 지역의 당시 척박한 환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길주목

다음 부평의 이름은 '길주'입니다. 잠시 우리 고장은 길주목으로 승격이 됩니다. 충렬왕(1236~1308년)은 원나라의 공주 제국대장공주와 결혼한 첫 번째 고려왕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몽골이 원(元) 나라를 세운 시기입니다. 원나라는 고려를 지배하고 고려키 왕을 사위로 삼고 원나라는 충성하라는 의미로 앞에 '충'자를 붙였어요. 충렬왕은 왕자 시절에 원나라에 볼모로 잡혀가서 살았는데 그 때 원나라에서 즐겼던 매사냥을 잊지 못해 왕위에 오른 후 *응방을 설치하여 사냥을 즐기는 등 사치스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곳 정매이교개에 국립 매방을 설치하여 계양고을에 와서 자주 매사냥을 했다고 합니다.

부평도호부

부평부(1310년, 고려 충선왕2년) 지금으로부터 약 700여 년 전에 우리 고장 부평의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고장 이름이 700년 이상 사람들로 부터 불리어 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나요? 조선시대 부평의 중심은 현재의 계양구였습니다. 그래서 부평도호부 관아도 당시의 중심지였던 현재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부평초등학교 내에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부평 도호부 건물은 총 24동 237칸의 규모였는데 1909년 부평공립보통학교(현 부평초등학교)를 세우면서 일제에 의해 강제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도호부 관아 건물도 원래는 'ㄱ'자 형태의 건물이었지만 현재는 'ㅡ'자 형태의 건물 한 동만 남아 있습니다.

한편 이곳 부평도호부 관아에 조선시대 임금님이 다녀간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22대 정조(1752~1800)임금은 1797년 10월 창덕궁을 떠나 김포를 거쳐 수원 의현룡원(사도세자의 능)에 가기 전에 부평에 들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능행차를 할 때 행렬이 얼마나 긴지 아시나요? 약 6000명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 때 당시에 부평에서 부자로 소문 난 당문보 라는 분이 어가 일행에게 수라를 대접해드렸다고 합니다. 이에 정조임금님이 시를 지어 하사하신 내용이 「홍제전서」에 나온다고 합니다.

* 응방-고려·조선 시대에 매의 사냥과 사육을 위해 두었던 관청



부평도호부

과거 부평의 지형



대동여지도 1861

조선시대에 만든 대동여지도에 부평이 등장합니다. 조선을 남북으로 나누어 만든 전국 지도집인데 '안남산'이라 표시된 부분이 바로 부평 지역입니다. 안남산은 현재의 계양산이라고 앞에서 설명해드렸지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평은 15개의 면을 가진 아주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의 부평은 물론 부천시, 계양구, 서구, 김포, 안산, 시흥, 서울 강서구 일부, 서울 구로구 일부 등이 모두 부평 지역이었습니다.



현재 부평의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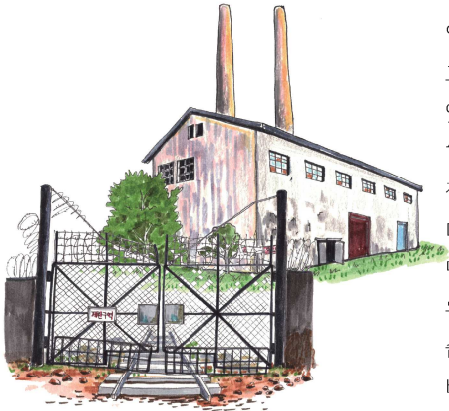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우리가 살고 있는 부평구는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9개의 법정동과 22개의 행정동이 있어요. 현재 약 5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어디인지 찾아볼까요?



일제강점기 무기공장 인천육군조병창



1910년,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은 일본은 이후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자 다른 나라의 침략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1937년 중국을 공격하여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점점 더 전쟁을 확대 갔으며, 전쟁에 쓰일 무기를 만들어내는 대규모의 공장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부평에 지었습니다.

바로 육군조병창입니다.

그럼 왜 부평에 지었을까요?

첫째, 경인철도를 이용해 만들어진 무기를 인천항으로 실어 날라 전쟁지로 운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굉장히 규모가 컸던 무기 공장이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부평은 서울과 가까워서 일하는 사람들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부평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개가 많아 비행기를 통한 적의 공격을 피하기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941년에 창설된 조병창은 한반도에서 가장 큰 무기제조공장이었습니다. 매달 소총 4천정, 총검 2만정, 포탄 3만발 등을 생산하였고 잠수함 부품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은 위험하고 강도 높은 작업현장에 내몰렸으며 1944년 조선총독부는 국민징용령을 시행하여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까지 강제로 동원해 부족한 노동력을 채웠습니다

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월간부평꾸러미



인천육군조병창
(사진출처 : 부평역사 박물관)



부평역사박물관에 전시중인 조병창에서 제조된 총과 총검



인천에서 건조한 일본잠수함
(사진출처 : 화도진도서관)



산곡동의 영단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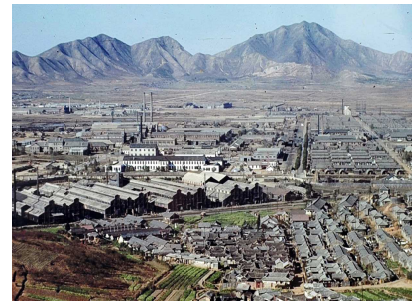
영단주택
(사진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대규모 무기 공장이었던 인천육군조병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다.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부평에는 주택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부평구 산곡동에 집단 주택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영단주택입니다.

미군 24군수지원사령부 애스컴시티

미군 제 24군수지원사령부(Army Service Command 24, 약칭 ASCOM)는 인천조병창과 인근의 군수공장 부지에 자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긴 주둔의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애스컴의 규모가 크고 마치 하나의 도시 같으며 미군들은 이곳을 '애스컴 시티'라고 불렀습니다. 주한미군 보충대를 비롯하여 보급, 의료, 통신, 운송, 항공지원 등 다양한 병과들을 포함한 미군부대 주변에는 이들을 상대로 하는 각종 상권이 발달하였으며, 트로트 일색이던 당시 가요계 분위기와 달리 빌보트차트의 인기팝송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주한미군 방위협약 수정에 따라 부평지역 내 많은 병력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했고, 이후 축소된 미군 주둔 지역에는 '캠프마켓'이 조성되었습니다. 80여 년 동안 높은 담벼락과 철조망으로 철저히 접근이 차단되었던 캠프마켓이 지난 2019년 반환되면서 비로소 온전한 부평의 땅이 되었습니다.

김정아 (부평역사박물관 총괄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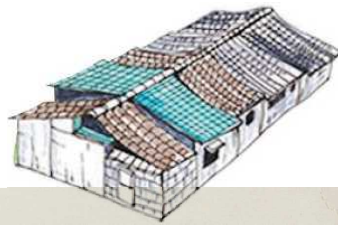
일본육군 조병창 1948년 (Norb-Faye 촬영)



부평 캠프마켓 2020
(사진출처 : 부평구청 홍보담당관)



무기공장인 미쓰비시제강과 사택



미쓰비시 사택
(사진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부평에는 인천육군조병창 외에 또 다른 무기 공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제의 대륙침략 전쟁을 위해 조선인을 강제 동원하여 무기를 생산했던 미쓰비시제강입니다.

미쓰비시제강은 지금의 부평공원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미쓰비시제강에서는 총알을 막을 수 있는 특수한 철판을 만들었습니다. 미쓰비시 사택은 미쓰비시제강에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숙소였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쓰비시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 부평2동의 미쓰비시 사택이 유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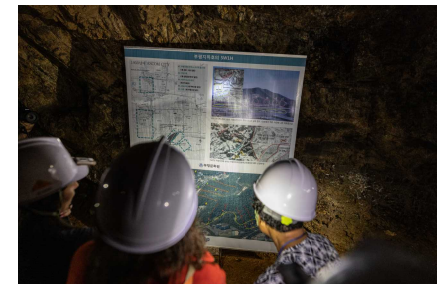
인천육군조병창의 지하시설 부평지하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지역에서 발견 된 다수의 부평지하호는 일제강점기의 전쟁 유적입니다.

1941년 인천육군조병창이 건립되자 무기생산에 협조할 목적으로 군수공장들이 들어서면서 부평은 한강이남 최대의 군수공업지대가 되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일제는 수세에 몰리면서 미군의 공습에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인천육군조병창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45년 3월, 당시 인천육군조병창이 작성한 극비문서에는 도쿄육군조병창의 일부를 인천육군조병창으로 긴급히 옮기며 폭격에 대비한 지하시설 계획과 공사현황 등이 적혀있습니다. 바로 부평지하호가 지하시설 계획의 일부 였던 것입니다. 당시 지하시설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조선인 학생들이 강제로 동원되었고 완성되기전 일제는 전쟁에 패배하게 됩니다. 광복 이후 일부 지하호는 새우젓을 숙성 시키고 저장하는 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함봉산에 위치한 "부평지하호"



도심 속 광산 부평은광



과거 부평은광 권양탑 (수직갱도)이 있었던 장소의 현재모습

도심 속 부평에 광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930년대 후반 일제는 대륙 병참기지화 발판으로 부평지역에 조병창을 건설합니다. 이 때 그와 더불어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것이 광물자원의 확보였습니다. 그 시기에 일제의 주도하에 부평은광은 1937년에 '부평광산'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광업에 착수했다고 「관보」에 게재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추출을 얼마나 했는지 기록이 없어서 해방 전까지는 규모가 약소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 후 1968년까지 수직 갱도를 중심으로 각 방향으로 광물을 찾기 위해 굴진하고 사방으로 뻗어 나간 수평 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평광산은 대부분 은을 주로 하는 광산이었고 전국 은 생산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였습니다. 그 후 1970년대 유망 수출광물로 떠오른 은의 호황으로 부평광산은 영풍광업에 의해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투자로 급속도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는 부평광산의 한 달 순이익이 10억이나 되었다고 매일경제 기사로 보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약 20여년 동안 이어지던 부평은광은 1987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부평은광 최근모습



부평은광 권양탑의 모습
(사진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부평은광의 수평갱도

부평문화원 샘길해설사 선생님이 들려주는

환경* 이야기

자연형 생태하천인 굴포천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우리 고장의 대표하천으로 자연성 유지 및 생태계가 복원되면서 다양한 식물과 어류, 조류, 수서 곤충, 양서류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부평애 샘길따라' 탐방을 통해 여러분들이 굴포천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연보호를 실천하면 지금보다 더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걸고 싶은 하천이 될 것입니다.



골포천 생태

어 류

- 1. 붕어**
잉어목 잉어과의 민물고기로서 등쪽은 황갈색 배쪽은 은백색에 황갈색을 띤다. (크기20~43cm)
- 2. 미꾸라지**
몸은 길고 가늘며 입가에 5쌍의 수염이 있다. 우리나라 전국 하천, 연못가, 논두렁에 서식한다. (크기8cm내외)
- 3. 잉어**
노란빛을 띤 갈색으로 등쪽은 진하고 배쪽은 은백색이며 강, 호수, 하천 등 물이 많은 곳에 서식한다. (성체크기50~120cm)
- 4. 메기**
2쌍의 입수염이 있으며 낮에는 돌틈에 숨어있다가 밤에는 먹이를 찾아 활동하는 민물고기이다. (크기30~50cm)
- 5. 대륙송사리**
밝은 회갈색을 띠며 송사리에 비해 작은 편이다. 동물 플랑크톤을 먹으며 오염된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편이다. (크기3~4cm)

수서곤충

- 6. 게아재비**
몸은 막대모양으로 가늘고 길며 수생식물 사이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먹이를 포획한다. (크기4~5cm)
- 7. 물자라**
하천이나 저수지 등의 잔잔한 물에 서식하며 작은 물고기나 올챙이 등 수생동물을 잡아 먹는다. (크기1.7~2cm)
- 8. 소금쟁이**
수면에 떠서 이동하는 것이 특징이며 수면으로 올라오거나 떨어진 곤충류와 같은 작은 동물들을 포획해 체액을 빨아먹는다. (크기1.1~1.6cm)
- 9. 아시아실잠자리유충**
수생식물이 풍부한 습지와 하천 등에 서식하며 봄에 일찍 부화한다. (크기1.9~2.1cm)



곤충

1. 칠성무당벌레

등 쪽에 자주색을 띠고 점무늬가 촘촘히 있는 것이 특징이며 진딧물이 있는 곳에 서식한다.

2. 애홍점박이 무당벌레

흑색에 광택이 나고 여러 종류의 각지벌레를 잡아먹으며 나뭇잎에서 연중 볼 수 있는데 특히 여름에 많다. (크기 3.6~4.3cm)

3. 노린재

작고 납작하며 여섯모꼴이고 걸날개는 누르며 다리는 검은데 몸에서 고약한 노린내가 난다. (크기 1~6.5cm)

4. 우리벼메뚜기

벼과 식물의 잎을 먹는 곤충으로 점프를 잘하는 것이 특징이다. (크기 2~3.5cm)

5. 여치

몸은 등배쪽으로 납작하며 뒷다리가 잘 발달하여 뛰 수 있으며 날개의 마찰면을 비벼서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크기 3~3.6cm)

6. 호랑나비

몸 빛깔은 녹색이고 셋째마디에 뱀눈 모양의 무늬가 있으며 꽃에서 꿀을 빨다. (크기 4.5cm)

7. 잠자리

몸은 가늘고 길며 배에는 마디가 있고 앞머리에 한 쌍의 큰 겹눈이 있다. 골포천에는 다양한 종류의 잠자리가 서식한다. (크기 4.5~5cm)





파충류와 양서류

1. 장지뱀

한국 특 산종으로 몸통의 등쪽은 빨간색을 띤 회갈색이고 꼬리길이가 몸길이의 3분의2 이상이다. (크기15~20cm)

2. 누룩뱀

4월 중순부터 활동하며 농경지역부터 하천주변까지 다양한 곳에서 서식하며 개구리나 설치류, 새알 등을 섭식한다. (크기40~100cm)

3. 두꺼비

등 면은 보통 갈색이고 피부융기 끝부분은 흑색이며 주로 육상에서 생활하며 곤충류나 지렁이 등을 포식한다. (크기60~100cm)

4. 개구리

변온동물로 물갈퀴가 발달하여 헤엄을 잘치고 겨울에는 동면(眠)을 하며 연못·개울·하천 등에 서식한다. (종류별로 크기가 다양함)

5. 맹꽁이

연중 땅 속에 서식하며 야간에 땅 위로 나와 포식활동을 하고 6월경 우기에 물가에 모여 산란한다. (크기4.5cm)



1 장지뱀



2 누룩뱀



3 두꺼비



4 개구리



5 맹꽁이

조류

1. 백로

부리가 길고 뾰족하며 해안이나 습지에 서식하며, 물고기, 개구리, 곤충 등을 잡아먹으며 굴포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조류이다. (크기 28~142cm)

2. 왜가리

연못·습지·논·개울·강·하구 등의 물가에서 단독 또는 2~3마리씩 작은 무리를 지어 행동하며 주로 낮에 활동하고 어류를 비롯하여 개구리, 뱀, 들쥐 등을 잡아먹는다. (크기 91~102cm)

3. 흰뺨검둥오리

한국에서는 전국에서 흔히 번식하는 유일한 여름오리이자 텃새이며 머리와 목은 연한 갈색, 배는 검은 갈색이다. (크기 61cm)

4. 가마우지

하천이나 해안에 무리지어 생활하며 몸 전체가 검정색을 띠고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와 제주도에 많이 분포한다. (크기 75~85cm)

5. 노랑할미새

강가 및 해안에서 먹이를 구하며 시멘트색을 띠며 허리 아래부분과 위꼬리덮깃은 올리브황색이다. (크기 18~19cm)

6. 쇠박새

전국에 걸쳐 번식하는 흔한 여름새이며 산지나 평지 숲에 살면서 보통 나무꼭대기에 앉아 지낸다. (크기 12cm)

7. 황조롱이

밤색과 황갈색을 띠고 주로 작은 조류(참새와 박새 등)와 쥐(등줄쥐와 집쥐)를 잡아먹으며 도시 환경에 잘 적응 하여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에서도 번식 한다. (크기 0~33cm)



1 백로



2 왜가리



3 흰뺨검둥오리



4 가마우지



5 노랑할미새



6 쇠박새



7 황조롱이



식물

1. 가막살나무 2. 개망초 3. 개양귀비 4. 고들빼기 5. 꽃창포
 6. 노랑어리연꽃 7. 노각나무꽃 8. 벌꽃 9. 봄까치꽃 10. 산딸나무꽃
 11. 산수국 12. 오디나무 13. 이팝나무 14. 은사시나무수꽃
유해식물 15. 환삼덩쿨 16. 가시박 17. 돼지풀





가로세로 낱말맞추기

부평팸 샘길따라 탐방을 모두 마쳤다면,
아래 설명을 읽고 '가로세로' 빈칸을 채워보세요~



				③				⑦
①								
		④					⑤	
②								
						⑧		⑨
	⑥							
						⑩		



가로

- ① 시력이 안좋을때 쓰는 것
- ② 심정동에 있는 우물로 가뭄이 극심할때에도 물이 넘쳐 났었던 우물터
- ③ 무명 등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등화용 연료
- ④ 굴포천의 시작점인 약수터
- ⑥ 부평문화원 내 고장 바로알기 탐방 “부평팸 □□□□”
- ⑩ 조선시대 김안로에 의해 물길을 만들던 중 □□□과 원적산 물이 연못을 이루었다.

세로

- ① 조선시대 세금으로 걷은 곡식을 한양으로 운반할 때 통과했던 곳 (세번째 굴착을 시도했던 곳)
- ② 산이나 언덕을 넘어 다니도록 길이 나있는 비탈진 곳
- ③ 인천나비공원 내에 있는 약수터
- ⑤ 산, 강, 바다 등의 밑을 뚫어 만든 도로 및 통로
- ⑦ 충렬왕때 부평의 이름
- ⑧ 2016년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부평의 대표하천
- ⑨ 인천나비공원을 품고 있는 산

ㅁㅁㅁㅁ ㉞ ㅁㅁㅁㅁㅁㅁ ㉟ ㄴㅁㅁㅁ ㊱ ㅁㅁㅁ ㉡ ㅁㅁㅁㅁㅁㅁㅁㅁ ㉢ ㅁㅁㅁㅁ ㉣ ㅁㅁㅁㅁㅁㅁㅁㅁ ㉤ ㅁㅁㅁ ㉥ ㅁㅁㅁ ㉦
 ㅁㅁㅁㅁㅁ ㉧ ㅁㅁㅁㅁㅁㅁ ㉨ ㅁㅁㅁㅁㅁㅁㅁㅁ ㉩ ㅁㅁㅁㅁ ㉪ ㅁㅁㅁㅁㅁㅁㅁㅁ ㉫ ㅁㅁㅁ ㉬ ㅁㅁㅁ ㉭

MEMO



굴포천 종합안내도

- 총괄 신동욱 (부평문화원장 겸 부평역사박물관 관장)
- 기획 이재만 (부평문화원 사업과장)
- 집필 천용임 (부평문화원 문화해설사)
김혜경 (부평문화원 문화해설사)
윤미숙 (부평문화원 문화해설사)

내 고장 바로알기 가이드북
부평문화원 샘길해설사 선생님이 들려주는

부평과 “굴포천, 이야기

- 발행일 2021년 8월 27일
- 발행처 부평문화원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51
- 홈페이지 www.bpcc.or.kr
- 디자인 나눔디자인 (032-508-6586)

